

- 2018년도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서

【2018.10.31.(수)~11.6.(화) / 대만,싱가포르,홍콩】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목 차

□ 발 간 사	1
I. 연 수 개 요	2
II. 연 수 일 정	3
III. 연 수 국 개 요	6
IV. 분 야 별 연 수 내 용	11
□ 도 심 기 반 시 설 및 다 중 편 의 시 설 조 성	11
□ 노 인 복 지 분 야	21
□ 지 방 의 회 및 의 정	25
□ 문 화 관 광	30
V. 연 수 소 감	36
VI. 결 론	38

발 간 사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 장 이 강 영

존경하는 남구민 여러분!

평소 남구의회에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구의회는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와 견문을 넓히고, 창의적인 의정 능력을 함양하며, 남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2018년 공무국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6일까지 6박 7일의 일정으로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 3개국의 선진의회와 도시기반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관광지 등 견학을 의원 8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3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하여 다녀왔습니다. 이번 연수단은 타이베이 소방방재교육관, 홍콩 도시계획관 및 싱가포르 클락키 수변광장 재개발 사례 현장을 중점 방문하여 도심 기반시설과 다중 편의시설 조성 등을 벤치마킹하고, 홍콩 카리타스 노인복지센터 시설 견학 및 관계자와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사회복지 분야 우수사례 및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시설운영 실태 전반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대만 타이베이 시의회를 공식 방문하여 질의응답을 통해 지방의회 운영 및 의정 활동 분야에 대한 상호토론 시간을 갖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각국의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시설 운영 분야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소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번 국외연수는 준비기간이 비교적 짧았으나, 연수 목적에 최대한 충실하게 계획하고, 의원 간담회를 수차례 갖는 등 방문 국가와 기관에 대한 사전지식을 상호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비록 모든 의원이 함께하지 못했지만 7일간의 국외연수를 보람 있게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보고서가 남구의 발전방향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남구의회 의원 모두는 구민의 눈 높이에서 소통하고 구민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주민감동, 열린의정」 실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

연수 개요

■ 목 적

- 연수국의 선진 제도·정책 벤치마킹 및 우수자료 수집 등으로 발전적인 정책대안 제시 등 의회의 역할을 제고하고,
 - 우수한 관광 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정책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도심기반시설 현장시찰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수집과 의원 상호간 토론을 통해 구정에 접목 할 수 있는 창의적인 정책을 발굴
 - 유엔참전 기념거리 조성, 용호 Sea-Side 관광지 조성, 문현터널 상부공간 공원화 사업,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 우암동 문화복합형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남구 주요현안과제에 대한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등 남구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연수참여 : 11명 ▷ 의원 8명, 직원 3명

■ 연수기간 : 2018.10.31.(수) ~ 11.6.(화) ▷ 6박 7일

■ 연수국가 : 대만, 싱가포르, 홍콩

■ 연수활동 내용

- 도심 기반시설 및 다중 편의시설 조성 분야
 - ▷ 대만 소방방재교육관, 홍콩 도시계획관, 싱가포르 가든스바이더베이 등
- 노인복지시설 비교 견학 및 우수사례 수집
 - ▷ 홍콩 카리타스 노인복지센터 공식 방문
- 지방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분야
 - ▷ 대만 타이베이 시의회 공식 방문
-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시설 운영 분야
 - ▷ 대만 고궁박물관, 싱가포르 클락키 수변광장, 센토사섬, 홍콩 해양공원 등

II

연수 일정

일 자	지 역	교통편	시 간	연 수 일 정
제1일 10월31일 (수)	부 산 타이베이	CI 189 전용차량	09:00	김해국제공항 출국장 중화항공 도착후 수속
			11:20	부산 출발 (비행시간 2시간 45분)
			13:05	타이베이 국제공항 도착
			15:00	공식방문 [타이베이 소방 방재 과학 교육관] - 태풍, 지진 등 재해재난 대응 교육기관의 프로그램 견학
			18:00	현장시찰 [타이베이 재래시장(야시장)] - 대만 지자체의 재래시장 지원 사례 견학
			20:00	호텔 투숙
				♣ 연수추진계획 및 세부일정 관련 토론 간담회
제2일 11월01일 (목)	타이베이	전용차량	07:00	호텔 조식 후
			10:00	공식방문 [타이베이 시의회] - 의원정수 62명 (여성 21명) - 선거구 총 6개지역 - 정당비례대표는 없으며, 임기는 4년 (연임가능, 8선의원 있음)
			14:00	현장시찰 [타이베이 고궁박물관] - 세계4대 박물관 중 하나인 고궁박물관 탐방을 통한 비교 견학 석식 후 호텔투숙
			18:00	
				♣ 2일차 연수성과 토론 간담회
제3일 11월02일 (금)	타이베이 싱가포르	CI 903 전용차량	07:00	호텔 조식 후
			09:00	현장시찰 [중정기념당]
			11:30	중식 후 공항으로 이동
			14:30	타이베이 공항 출발 (비행시간 4시간30분)
			19:15	싱가포르 국제공항 도착 및 석식
			20:30	현장시찰 [가든스바이더베이] - 인공조형물과 식물의 아름다운 조화와 야간 화려한 조명들로 유명한 싱가포르 정부 감독하에 조성된 도심속 정원
			21:30	호텔투숙
				♣ 3일차 연수성과 토론 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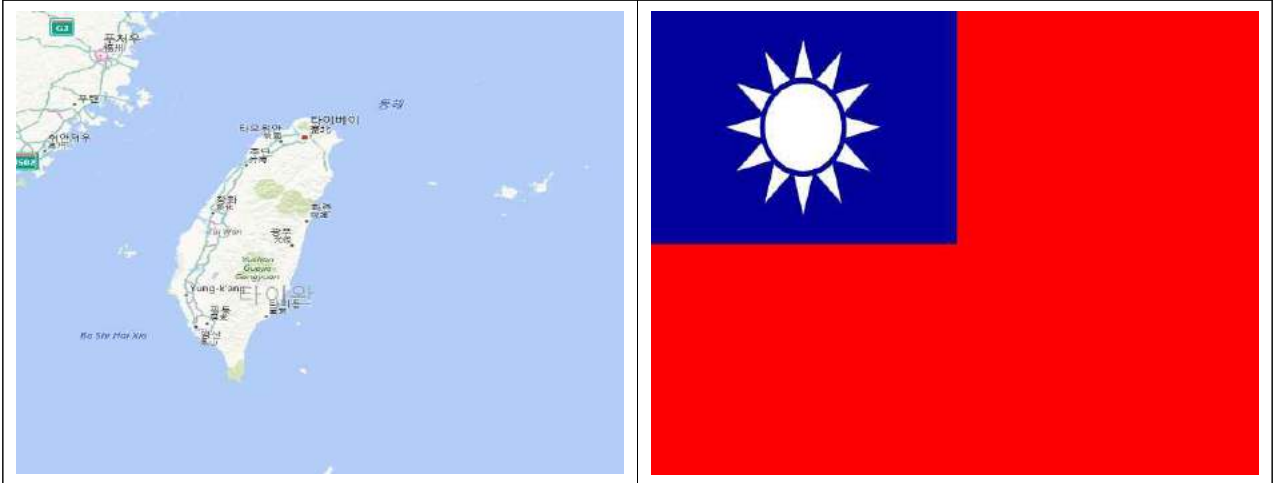
일 자	지 역	교통편	시 간	연 수 일 정
제4일 11월03일 (토)	싱가포르	전용차량	07:00	호텔 조식 후
			10:00	현장시찰 [해양복합휴양시설 센토사섬, 주룽새공원] - 해상 케이블카 비교견학 등 남구 관광자원 벤치마킹
			19:00	현장시찰 [클락키 수변광장 재개발 사업현장] - 물류창고지역을 재개발하여 수변 도시재생의 대표사례로 손꼽히는 현장 견학
			20:00	호텔 투숙
				♣ 4일차 연수성과 토론 간담회
제5일 11월04일 (일)	싱가포르	전용차량	06:00	기상 후 공항 이동
			CX 710	08:00
	홍 공	전용차량	11:55	홍콩 국제공항 도착
			14:00	현장시찰 [홍콩 해양공원] - 아시아 최대규모의 테마파크 오션파크 - 해상 케이블카 비교견학 등 남구 관광자원 비교 벤치마킹
			18:00	석식후 호텔투숙
				♣ 5일차 연수성과 토론 간담회
제6일 11월05일 (월)	홍 공	전용차량	07:00	호텔 조식 후
			10:00	공식방문 [카리타스 노인복지센터] - 명칭 : CARITAS ELDERLY CENTRE - 고령의 저소득층을 위한 노인요양시설
			14:00	공식방문 [홍콩 도시계획관] - 명칭 : HONGKONG CITY GALLERY - 홍콩특별행정구정부의 주요 계획 제안 및 인프라 프로젝트를 전시하는 장소
			19:00	석식후 호텔투숙
				♣ 6일차 연수성과 토론 간담회
제7일 11월06일 (화)	홍 공	전용차량	07:00	호텔 조식 후 공항으로 이동
			CI 642	11:55
	타이베이		13:45	타이베이 공항 도착 후 연결편으로
			CI 186	16:00
부 산		19:00	김해 국제공항 도착	

■ 연수단 담당 과제

연번	직 위	성 명	업 무 내 용	비고
1	의 장	이강영	단 장	
2	부의장	백석민	연수 결과보고서 작성	
3	주민복지 도시위원장	허미향	다중 편의시설 조성 분야 비교 분석	
4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박미순	관광상품 개발 정책 우수사례 자료 수집	
5	의 원	조상진	도심 기반시설 우수사례자료 수집	
6	의 원	이병준	복지정책 및 노인복지시설 우수사례 자료수집	
7	의 원	강건우	지방의회 운영관련 자료 수집	
8	의 원	유명희	도심 기반시설 우수사례자료 수집	
9	전문위원	김상웅	과제 연구자료 수집	
10	직 원	조재훈	과제 연구자료 수집	
11	직 원	김동현	과제 연구자료 수집	

Ⅲ 연수국 개요

【 대만 (Taiwan) 】



- 국 명 : 중화민국 (中華民國) ※대만이 주장하는 정식 명칭
- 수 도 : 타이베이 (Taipei)
- 인 구 : 약 2천3백만명
- 종 교 : 불교, 유교, 도교, 기독교, 천주교 등
- 민족구성 : 한족 (98%), 원주민 (2%)
- 언 어 : 푸통화(Mandarin), 대만어
- 정부/의회형태 : 공화제/다당제&단원제
- 면 적 : 36,193km²(우리나라 경상남.북도 면적)

대만은 중국의 동남쪽 타이완 해협에 위치해 있으며, 대만이 주장하는 정식명칭은 ‘중화민국(中華民國)’이다. 일반적인 명칭은 대만이며,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에서 밀린 국민당이 남쪽으로 내려와 세운 나라로, 쑨원(孫文)을 국부로 삼고 있다. 양안관계(국공내전을 통해 중국대륙을 차지한 중화인민공화국과 타이완으로 망명한 중화민국 사이의 관계)로 늘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나라이다.

원주민 전체 인구는 대략 325,000명으로 루카이, 파이완, 부논, 트로코, 아미 등으로 불리는 13개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주민을 제외하고 청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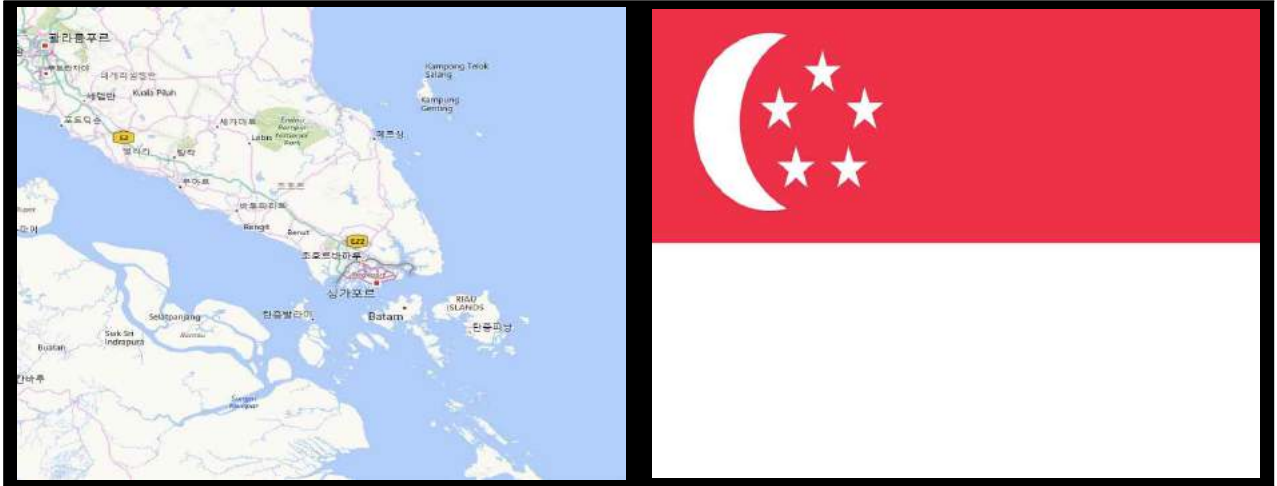
라때부터 중국 남부로부터 이주해온 중국인들이 2천만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며, 세계에서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 중에 하나이다. 공식 언어는 중국 북경어인데 여러 곳의 지방 방언들도 같이 사용하며, 외국어 중에는 영어가 가장 많이 통용되지만 영어에 능통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만나기 힘든 편이다. 기후는 아열대성으로, 연평균 기온은 22~24℃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무더운 여름은 5~9월 사이의 기간이 해당하며 최고 35℃까지 올라간다. 겨울은 짧고 온화한데 12~2월 기간이며 기온은 12~16℃ 정도이며, 눈은 고산지대에서만 내리고 흐린 날에는 쌀쌀한 기운을 느낄 정도이다.

□ 타이베이(Taipei)

타이베이는 대만의 수도이자 최대 도시이다.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면서 타이완 섬은 일본에 할양되었고, 일본은 도시계획을 세우기 용이했던 타이베이를 타이완 섬 통치의 중심 도시로 삼으면서, 타이완 섬의 수위도시로서 타이베이의 입지는 확고해졌다. 중국 전역의 국민당 지지자들이 타이완 섬으로 이주하여 타이베이에 정착했으며 동시에 급격한 도시 발전이 이루어졌다. 2012년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조사한 타이베이 대도시권의 경제규모는 GDP가 2,983억 달러로 알려져 있다.

대만 대부분 도시가 그렇듯이 거리의 자동차들은 대부분 일본차들 일색이다. 그러나 거리에서 제일 많은 교통수단은 이륜차와 스쿠터이며, 한 차선을 차지할 정도로 이륜차들이 많다. 최고 번화가인 서문정, 우리나라의 명동 정도의 위상을 지닌 곳으로 타이베이 문화의 최신 트렌드를 볼 수 있다. 패션, 영화관, 각종 맛집 등이 집결해 있다. 거리 곳곳을 다니다보면 일본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을 정도로 일본 친성향 정서가 강한 나라임을 느낄 수 있다. 타이베이의 행정구역은 시 산하에 12개 구를 관할하며, 1968년 서울특별시와 가장 먼저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대구광역시와도 자매결연을 맺는 등 도시간 자매결연에 매우 적극적인 도시이다.

【 싱가포르 (Republic Singapore) 】



- 국 명 : 싱가포르공화국 (Republic of Singapore)
- 수 도 : 싱가포르
- 인 구 : 약 540만명
- 종 교 :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도교, 힌두교, 기타
- 민족구성 : 중국계 (74%), 말레이계 (13%), 인도계 (9%), 기타 (4%)
- 언 어 :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등 4개 공용어
-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
- 면 적 : 714km²(서울시 605.4km²)

‘그린 & 크린 시티’로 불리는 머라이언의 나라 싱가포르는 14세기경에 수마트라 섬의 한 왕자가 이곳을 방문했을 때 이상한 동물을 보고 사자로 오인하면서 ‘싱가푸라(Singa Pura, 사자의 도시)’로 불리워지다가 영국인들에 의해 싱가포르로 발음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정확적으로 동남아시아의 중심에 있었던 탓에 1832년에는 영국의 식민지였으며, 1942년부터 1945년까지는 일본의 식민지였다. 이후 영국 식민지로 환원되었던 싱가포르는 1959년 영국 연방내 자치 정부를 설립했으나, 1963년에 말레이시아 연방으로 통합되었다. 그러다가 1965년에야 비로소 독립 공화국을 설립하게 되었으며, 117번째로 유엔에 가입하는 국가가 되었다.

싱가포르의 옛 명칭인 ‘테마섹(Temasek : 바다의 마을)’에 널리 알려진 전설속의

동물 ‘머라이언’은 1964년 싱가포르의 상징으로 처음 착안 되어 관광청 공식 문장으로 사용되게 되었으며, 현재 싱가포르의 발전과 성장을 상징하기 위해 싱가포르 강 입구에 위용을 뽐내고 있다.

싱가포르는 본섬 외에 50여개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고 총면적은 692.7km²다. 북위 1.09-1.29도, 동경 103.38 - 104.06도에 위치하며, 적도로부터 북쪽으로 약 1백37km 떨어져 있다. 이웃 인도네시아와는 동서를 잇는 유명한 해상 루트인 말라카 해협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말레이시아와는 조호 수로를 잇는 다리를 사이에 두고 접해 있는 항만 도시 국가이다. 싱가포르 본섬의 서남부는 암석지대로 저습지가 많고 동부지역은 모래가 많아 해수욕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싱가포르는 중국인, 말레이인, 인도인 등 다양한 인종이 어울려 사는 다민족 국가이다. 싱가포르 국민들은 자국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는 물론 멀리 포르투갈까지 다양한 문화적 뿌리를 두고 있다. 인구는 4백 35만명으로 공용어는 영어, 중국어, 타밀어, 말레이어이고, 종교는 불교, 이슬람, 기독교, 힌두교이다. 다민족 국가로서의 통합을 위해 종교에 따라 상이한 사회관습을 존중하며, 공동질서 유지를 위해 중벌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도시국가, 정원국가를 표방하며 ‘동남아의 별’로 호칭되고 있으며, 천혜의 지리적 조건에 힘입어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정유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고무, 주석, 코코넛, 석유, 목재, 쌀, 향료, 커피, 황마 등 각종 산물의 거래시장으로 이 지역의 부를 창조하고 있다.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에는 지식기반 위주의 경제구조 전환을 추진하여 미래산업 개척 전략을 마련하였으며, 복합리조트 사업을 통한 관광산업 육성에도 힘 쏟고 있다.

정부와 공무원은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집단이라는 인식하에 최고 엘리트를 핵심공무원으로 충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엘리트 집단이 국가발전에 있어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교육시스템도 능력우선주의 원칙에 따라 엘리트 선별하기 위한 방식을 도입 시행하고 있다.

【 홍콩 (Hong Kong) 】



- 정식명칭 :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 인 구 : 약 705만명
- 종 교 : 불교, 도교, 기독교 등
- 언 어 : 영어, 중국어(광둥어)
- 정부형태 : 일국양제
- 면 적 : 1,101km²(서울시 약1.8배)

1997년 7월 영국 식민지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홍콩은 홍콩섬과 인근의 작은 섬들, 스톤커터섬, 본토의 주룽반도 뿐만 아니라 본토 일부와 란터우섬 등 230여개가 넘는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 남북 길이 43km, 동서 길이 56km이다. 북쪽은 광둥성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남쪽은 남중국해에 접해있다. 홍콩의 기후는 열대기후이로 7월 평균기온은 29℃ 이고 겨울은 쌀쌀하고 건조하다.

홍콩 주민의 약 97%가 중국인이고 이들 대부분은 인접해 있는 광둥성 출신이며, 푸젠성 및 다른 성 출신도 약간 있다. 중국인을 제외한 나머지 주민들은 주로 영국·미국·포르투갈·일본사람이다.

홍콩은 인구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하며, 출생률은 아시아에서 가장 낮은 편으로 사망률은 이보다 더 낮아 출생률의 1/2수준이다.

IV 분야별 연수내용

☒ 도심 기반시설 및 다중 편의시설 조성

■ 타이베이 소방방재 과학 교육관

타이베이 소방방재과학교육관은 태풍, 지진 등 대비 관련 대응 교육기관으로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재난관련 대비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정부 소방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육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모두 공무원이다.

대만은 지리적으로 지진,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나라다. 그래서 자연재해를 대비한 방재행정, 교육 등이 잘 이루어져 있다. 대만에서는 유치원생,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방재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실제 방문 당일에도 많은 학생들이 교육받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교육관에는 지진, 태풍, 홍수 등 여러 자연재해 상황을 가상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었으며, 영상물 등을 통해서도 교육하고 있었다.

✎ 소감 및 시사점

소방방재교육관은 우리나라의 유사 교육기관에 비해 최신 장비를 구축하고, 더 선진화된 교육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지만, 학생들 특히 어린 유치원생과 같은 어린이들의 조기교육에 많은 시간을 부여해 어렸을 때부터 재난에 대응하는 자세를 함양시키는 점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지난 세월호 참사를 돌이켜 보면 획일화된 교육이 대형 참사에는 오히려 악재가 된 경우를 우리는 볼 수 있었다. 현명한 개인의 판단이 집단적으로 작용되는 것이 오히려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재난상황에서 개인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재난에 대응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아이와 엄마,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삶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을 예견하고 체험하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항상 연구하고, 교육하는 것이 생활화 되어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교육관은 태풍, 지진, 화재 등 실제 상황을 가상한 체험공간을 마련해 재난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또한 평소에는 방석으로 활용하다, 지진 발생시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도구로 사용되는 생활용품을 개발해 활용하는 점은 우수 사례로 생각 된다.

■ 관련사진



소방방재과학교육관 방문



방재기구 전시관



영상실에서 교육관 현황 보고



방석겸용 안전모 착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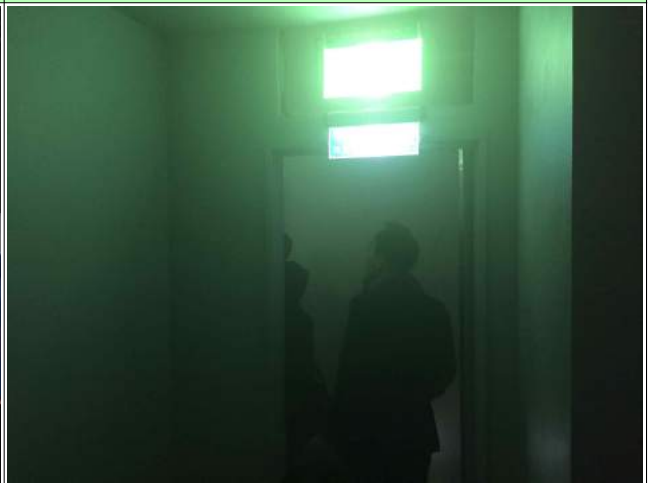
지진 가상 체험



소방장비 전시실



태풍 가상 체험



화재 가상 체험



간담회 장면



방문기념품 전달

☞ 관계자와의 질의응답

Q	대만은 어떤 재난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책은?
A	올 2월과 10월에 대만 동부 화롄 지역에서 규모 6.0 이상의 지진으로 사망자와 부상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지진이 최근 많이 발생되고 있다. 그리고 태풍도 해마다 많은 피해를 주고 있어, 정부와 소방당국은 응급 복구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내진 설계도 강화하는 등 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Q	오늘 교육관을 둘러 보는데 많은 학생들이 교육받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는데,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A	주로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은 교육을 받고 있다. 학교에서는 주기적으로 교육관을 찾아 테마별로 수시로 교육을 받는다. 교육은 학교에서 의무교육이수 외에도 자발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교육 신청자가 많을 시에는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는 등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Q	대만 건물 구조가 기둥이 인도로 나와 있어 우리나라 필로티 구조와 비슷한데 오히려 지진에 취약한거 아닌지?
A	기둥을 보면 알겠지만 대단히 두껍고 튼튼하게 건축된다. 건물 전체가 기둥으로 건축되는 필로티구조와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대만은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비를 피할 수 있는 잇점도 된다.

■ 싱가포르 가든스 바이 더 베이(Gardens By The Bay) & 복합휴양시설 센토사섬(Sentosa Island)

가든스 바이 더 베이는 싱가포르 정부의 감독 하에 지어진 곳으로 ‘도시 속의 정원’이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곳으로 대규모의 열대 숲을 떠올리게 하는 곳이다. 가든스 바이 더 베이는 슈퍼 트리, 돔 형태로 지어진 온실인 플라워 돔과 클라우드 포레스트로 유명하다. 슈퍼 트리는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나무 모양의 인공 조형물과 식물이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밤에는 화려한 색의 조명들로 장식된다. 슈퍼트리를 서로 연결하는 스카이웨이로 올라가면 마리나베이샌즈호텔과 식물원의 전경을 모두 관람할 수 있다.

센토사섬은 싱가포르 본섬에서 남쪽으로 약 800m 떨어져 있으며, 동서길이 4km, 남북길이 1.6km정도이다. 1970년대까지 영국의 군사기지였으나 이후 싱가포르 정부의 지원으로 관광단지가 조성되었다.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 주요시설과 관광객을 연결 운송하여 편하게 모든 곳을 관람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 있다. 해양수족관과 음악 분수 등이 있으며, 해양박물관 등 3개의 박물관이 있다. 특히 거대한 머라이언 상이 압권으로 싱가포르 관광청의 상징이기도 하다.



✎ 소감 및 시사점

싱가포르는 매우 습하면서 더운 나라다. 방문한 시기가 11월 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장마 때와 비슷한 느낌을 받을 정도였다. 하지만 가든스바 이더베이에 입장하는 순간 녹색의 청량한 공기는 그동안 숨막히는 호흡을 일시에 날려버리기에 충분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동선과 입체미를 살린 스카이웨이는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우리도 공간효율을 높이기 위한 창의적인 생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작은 시설에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단계에서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센토사섬 역시 무더운 날씨와 접근성 편의를 위해 해상케이블카, 트램을 활용한다. 우리 남구는 이기대 동생말과 해운대를 연결하는 해상케이블카가 민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 환경보호론자의 자연훼손이라는 주장과 개발론자의 관광수입 증대와 지역 개발 주장이 맞서고 있다. 싱가포르의 언론의 정부 비판도 내용에 따라 규제를 하고, 건축물도 비슷한 설계의 건물도면은 허가가 나지 않을 정도로 통제가 강한 나라이다. 그래서 우리 여건과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여러 방안을 검토하기엔 좋은 비교대상이라고 생각된다.

굳이 이기대와 해운대를 잇는 해상케이블카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황령산에 트램을 설치해서 이기대 케이블카와 연계하여 오륙도를 연결하는 남구만의 관광상품 등 다양한 관광상품도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 특히 센토사섬의 복합휴양시설단지 크지 않는 섬 내에서 숙박과 해양레포츠, 쇼핑까지 모두 가능하다는 점은 우리 남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 남구의 현안 사업인 Sea-Side 관광지 조성, 오륙도 해파랑길 관광안내소 증축, 해양클러스터 산업, 용호동 쉼자리 지구단계획 등 산적해 있는 인근 지역 개발계획은 남구 관광산업의 미래라고 할 수 있다. 단기적 안목으로 개별 개발논리보다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남구 전체를 위한 정책 개발을 펼쳐 센토사섬처럼 체류형 관광단지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 **관련사진**



가든스바이더베이 입구



클라우드포레스트



종유석 전시관



스카이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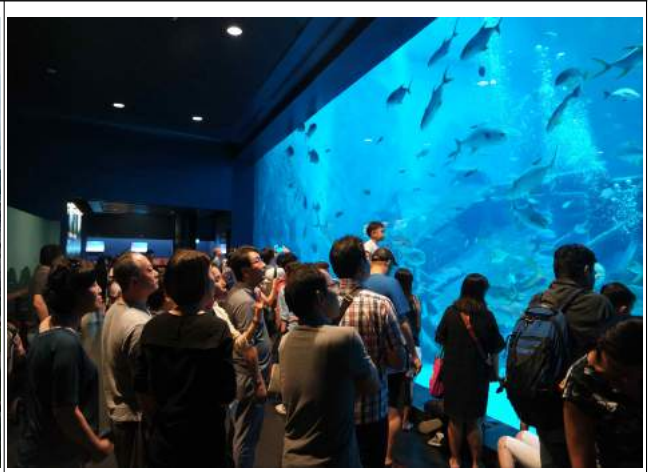
주룽새 공원 트램



센토사섬 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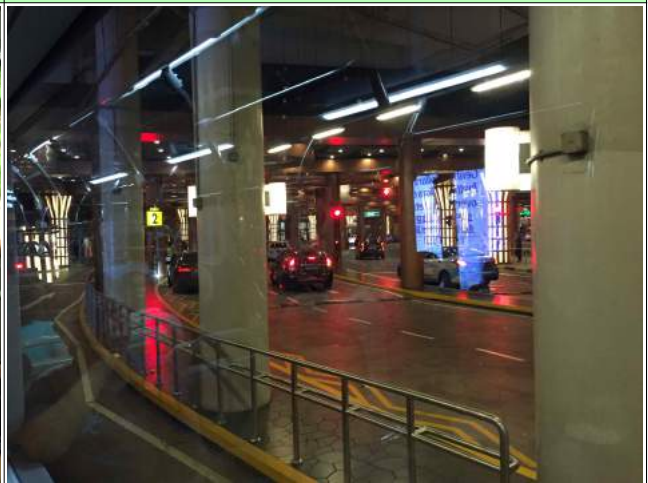
센토사섬 전망대에서 본 전경



센토사섬 내 해양수족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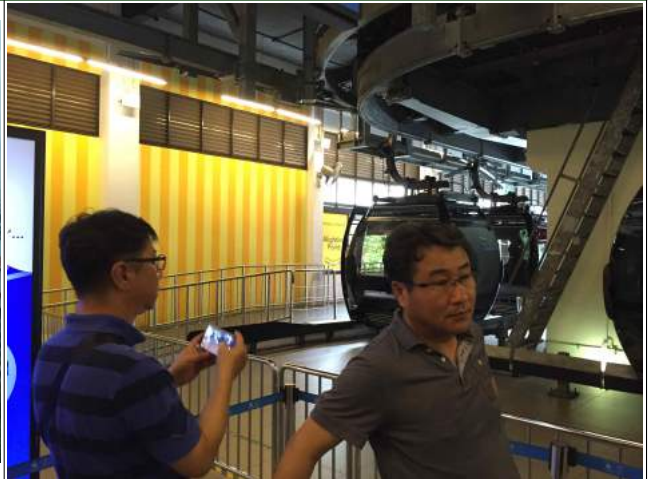
센토사섬 순환버스



센토사섬 지하도로



해상케이블카



해상케이블카 중간역

■ 홍콩 도시계획관 (HONG KONG CITY GALLERY)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시민 생활을 개선하고, 홍콩을 아시아에서 부유한 나라로 만들고 기본도시계획을 널리 알리기 위해 도시계획관을 설치하였다. 전시관은 도시계획, 여행, 교통물류 등이 전시되어 있어 홍콩의 과거와 현재를 볼 수 있으며, 미래의 홍콩의 모습도 상상할 수 있게 한다.

전시관은 도시계획, 여행, 교통물류 및 환경보호 등으로 전시되어 있다. 1층 현관에는 홍콩의 야경과 같은 화려한 조명으로 방문객을 반긴다. 항만물류 강국인 홍콩의 발전을 모습을 보여주는 교통물류 전시관에는 입체 효과 컴퓨터가 항만의 미래 전경을 보여주며 방문객에서 실제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홍콩본섬과 부속섬 등 홍콩의 각 지역의 모형을 살펴봄으로써 홍콩 전체의 모습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홍콩은 여러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보니 교량과 해저터널이 많다. 전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 중에 하나인 양선주 대교와 여러 해저터널의 모형을 봄으로써 홍콩의 교통과 물류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 소감 및 시사점

홍콩 도시계획관은 예상보다는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전시관이었다. 하지만 시민들 누구나 손쉽게 방문해서 홍콩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한 홍콩정부의 세심함을 느낄 수 있었다. 1층에서 2층, 각 층마다 주제별로 홍콩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최근 우리 남구는 용당동 레미콘공장 인·허가 문제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생기는 등 여러 문제점이 생겨, 집행부에서는 기피시설 인·허가 예고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유해물질 배출 같은 기피시설을 설립하겠다는 신청을 받으면 인·허가 전 주민들에게 알리는 행정예고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행정예고 대상 시설은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이다. 여기서 홍콩 도시계획관이 우리에게

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독립적인 전시관을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겠지만, 예산 등을 고려하면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어떤 시설이 계획되고, 변경되는 지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구청 관련부서 내에 상황실을 만든다든지, 동주민센터를 활용해 우리 지역에서 진행되는 도시계획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 **관련사진**



도시계획관 전경



1층 전시관



홍콩 주요시설 모형도



홍콩의 경제 성장 등 미래 전략 설명

☒ 노인복지 분야

■ 홍콩 카리타스 노인복지센터 (CARITAS ELDERLY CENTRE)

본 노인복지센터는 카리타스(Caritas)라는 가톨릭재단이 1953년 7월 설립한 복지시설이다. 홍콩 카리타스의 노인복지센터는 고령자와 보호자들의 요구에 따라 매년 1만 50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방문을 통한 말동무 서비스를 비롯해 연간 38만명의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또 매년 4,000여명의 노인들에게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500여명에게는 수중 치료요법도 서비스하고 있다. 이밖에 매년 4,800여회의 레크리에이션 자원봉사와 6만여회의 개인 자원봉사가 이뤄지고 있다. 홍콩에는 모두 140개의 카리타스 재단 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15억 홍콩달러(약 200억원)가 지원되고 있다. 15억 홍콩달러의 지원금 가운데 60%는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40%는 기부금으로 충당된다고 한다. 노인복지센터는 단순한 쉼터의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자원봉사자를 포함한 160여명의 등록보호자들이 치매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돌본다. 특히 1년 이상 활동한 250여명의 사회복지사들이 1,317명의 등록 독거노인을 보살피며, 필요한 경우 병원이나 요양시설과 연계해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책임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홍콩은 2009년 기준 전체 700만명의 인구 중 65세이상 노인은 약 13%를 차지해 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2029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28%로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관계자와의 질의응답

Q	노인복지센터 이용자 수와 직원은?
A	이곳은 약270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직원은 원장을 비롯한 30명이 근무하고 있음.
Q	주로 어떤 분들이 이용하는지?
A	여기는 거동이 불편하고, 치매를 앓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임. 상주하시는 분들과 매일 센터 차량을 이용해 주간에만 이용하시는 분들로 구분됨.
Q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A	노래교실이 호응을 크게 받고 있음. 그리고 관절이 약하시기 때문에 수영장에서 치료를 위한 레크리에이션을 많이 선호함.
Q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그램 준비는 어떻게 하는지?
A	회원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내면 운영위원회(회원들로 구성)에서 논의를 거쳐 준비되고 있습니다. 노인센터 운영 재정은 대부분 시 보조로 이루어지며 회원들의 자원봉사와 기부도 있음.
Q	치매환자가 많다고 들었다. 그분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은 있는지?
A	예전 기억, 좋은 기억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함. 시설 곳곳에 과거 사진과 예전 물건을 비치해서 과거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음.

✍️ 홍콩의 노인복지제도 고찰

홍콩통계청에 따르면, 2030년까지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의 약 25%를 차지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홍콩에서는 사회보장지원을 받을 수 있어 재정적인 부담이 줄어 중국에서 홍콩으로 귀향하는 사람이 증가하는 것도 노인 증가의 한 요인이라고 한다. 홍콩의 요양시설은 self-care hostel, aged home, care and attention homes의 3가지로 분류되며, 비영리단체와 사기업 및 정부에 의해 설립된다. Self-care hostel은 비교적 건강한 노인에게 주거공간 제공하여 가사일을 처리할 수 있는 노년층이 모이는 공간이다. Aged home은 주거공간을 제공하나 집안일을 하기에 불편함이 있는 노년층을 위한 공간이며, Care and attention homes은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개인 보조가 필요한 노년층을 위한 공간으로 전문적인 치료는 하지 않는 곳이다. 홍콩 정부는 노년층에게 노인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매달 705홍콩달러씩 지급한다. 특히 노년층을 위한 교육을 확대하고 케어시스템 지원을 매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의료서비스 지원 예산도 확대해 선진화된 의료장비를 도입하고 있으며, 건강기록 정보를 전산화해 체계적인 건강 관리를 계획하는 등 지속적인 노년층 지원 정책을 수립해 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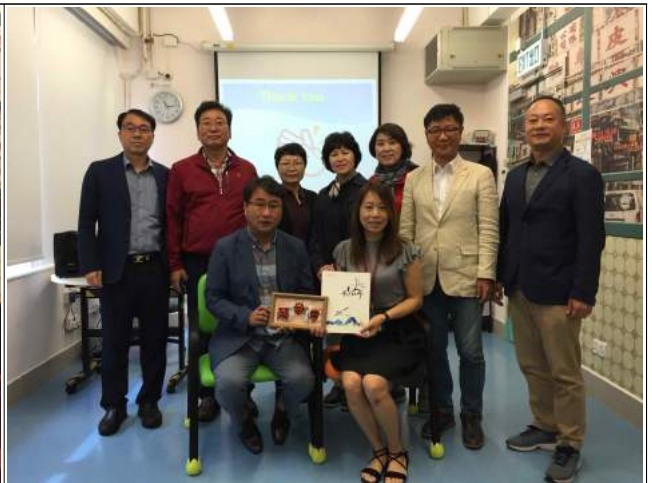
☞ 소감 및 시사점

카리타스 노인복지센터는 성인병, 알츠하이머 및 치매 케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치료 요법으로는 노래부르기, 춤추기, 그림그리기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과 특히 치매케어 프로그램으로 예전 사진과 추억의 물건으로 좋은 기억 떠올리기 등 대화를 통한 뇌기능 활성화 등 다양한 치료요법을 운용하고 있었다. 시설에 맡겨지는 것에 대해 노인들은 큰 거부감이 없어 보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 맡기는 가족이나 맡겨지는 노인 모두, 아직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실정임을 비취볼 때 노인복지제도의 안착에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리 남구도 노인복지관 분관을 문현동에 건립 중이다. 최신 시설과 장비도 중요하지만, 노인분들의 정서를 이해하고 교감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카리타스 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얻은 교훈이다.

■ 관련사진



노인복지센터 간담회



방문기념품 전달



노인복지센터 체력단련실



어르신 춤추기



어르신 노래교실



1층 시설안내



예전 기억 살리기 도구 등



카리타스노인복지센터 방문

☒ 지방의회 운영 및 의정 분야

■ 대만 타이베이 시의회 (TAIPEI CITY COUNCIL)

타이베이는 대만의 수도로 면적은 271.8km², 인구는 267만명이다. 시의회는 의원정수 62명(여성의원 21명)으로 정당비례대표는 없으며, 여성의원이 4명 중 1명이 있어야 한다. 의원 임기는 4년, 연임가능(8선의원 있음)하며, 입법권, 질문권, 심사권(예산) 등이 있다. 시정질문은 의원당 40분이 주어지면, 총 100일의 회기 중 질의기간이 33일 소요된다. 의회 기구는 비서장, 부비서장, 10개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인원수는 정식 98명, 기타 2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사권은 의장에게 있으며, 보좌관을 6 ~ 8명을 둘 수 있다. 의정활동은 각 가정에서 인터넷 방송으로도 시청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 왕자충(王子忠) 타이베이시의회 부비서장과의 질의응답

Q	타이베이 시의회 현안사항에 대해?
A	먼저 우리 시의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 마땅히 의장님을 비롯해 의원님들과의 만남을 추진했어야 했는데, 현재 선거기간으로 의원님들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해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전한다. 우리 타이베이는 현재 많은 안건들이 산적해 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만은 전국적으로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새롭게 의회가 구성되면 안건들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Q	대만과 우리나라는 1992년 이후 국교가 단절된 상태다. 우리나라와 교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A	비록 국교는 단절되어 국가 간 공식교류는 없지만, 민간 경제 분야에서는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한류로 인한 문화 콘텐츠 교류는 양국 간의 우호 관계에 새로운 장을 놓았다고 생각된다. 앞으로도 이런 관계가 유지 되었으면 하고, 부산 남구에도 방문하고 싶다. 그리고 내일 중정기념관, 고궁박물관을 방문한다고 미리 들었다. 대만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Q	타이베이 시의회가 서울특별시와 대구광역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부산시의회와 남구의회가 함께 추진해 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A	우리 타이베이 시의회는 다양한 국가의 의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실제 교류도 활발히 하고 있다. 부산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 남구의회가 이번 방문을 계기로 부산과도 좋은 인연을 만들어 줄 거라 믿는다.
Q	본회의장 의원 책상 주위로 수많은 문서들이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우리 의회와 달리 보이는데 의회 운영에 대해서 설명?
A	매번 본회의장에 수많은 문서와 자료가 올라와 있지는 않는다. 현재 내년도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 각종 자료가 배부된 상태다. 본회의장에서도 많은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좌석을 보시면 알겠지만, 집행부와 마주 보며 앉아 있다. 그만큼 집행부와 의회는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현안 사항 대해 질의와 토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 대만 선거제도와 지방정부에 대한 고찰

대만은 20세 이상의 국민이 직접·보통·비밀·평등 선거를 통해서 대표자를 선출한다. 총통 등 중앙 선출직 공무원, 지방자치 단체장은 절대 득표수에 따라 당선되며, 각급 의회(立法院,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각 지역구에서 일정수의 대표를 선출한다. 2013.4월 현재 총 238개의 정당이 등록되어 있으나 영향력을 미치는 정당은 국민당(KMT), 민진당(DPP), 친민당(PFP), 대만단결연맹(TSU) 등 4개 정당이다.

대만은 '87.7 계엄령 해제 이후, 민주화 추진을 위해 90년 5월 이등휘 총통 민주개혁 추진 입장 표명, 91년 공산당과의 내란 상태 종식 선언 조치 등을 단행하고 91년 5월 선거제도와 민의 대표기관 구성에 중점을 둔 수정 헌법 공포하고 92년 12월 제2기 입법위원 선거를 실시했다. 이후 대만 역사상 최초로 민선, 국민·민진당 간 양당 정치 기반 확립되어, 97년 7월 총통, 행정원, 입법원 등 권력기관 구조 개혁에 중점을 둔 헌법 수정을 통해 민주선거제도 및 의회정치 기반을 마련했다. 92년 12월 최초로 입법원 민주 선거 실시하였고, 96년 3월 역사상 최초로 총통 직선을 실시하여 2000년 3월 진수편 총통 당선으로 여야 최초 정권 교체가 되었다. 그리고 2008년 3월 제12대 총통선거에서 마영구가 당선되어 두번째 여야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대만 지방정부 행정구역 현황은 5개 직할시(대북, 고웅, 태중, 태남, 신북), 14개 현, 3개 시, 368개 구(157개)·향(153개)·진(41개)·현할시(17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4개 현 중 12개 현은 대만성 소속, 2개 현(금문, 연강)은 대만 관할 복건성 소속이다. 직할시는 중앙정부가 직접 관할하며, 현할시는 현정부가 관할한다. 직할시는 인구 125만명 초과 대도시이며, 현할시는 현내 인구 15만-50만 규모의 상공업 발달 지역으로 향, 진 아래에는 리, 촌이 설치되어 있다. 대만의 지방자치는 1946년 촌장·이장, 향·진 등 주민대표를 민선으로 실시하기 시작하였으며, 1950년 4월 대만성 각 시·현 지방자치 실시요강 공포하여 1950년 7월 현·시·향·진 단체장 및 지방의원 선거를 실시하였다. 일선 촌장, 이장까지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제도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 소감 및 시사점

공식 방문기관인 타이베이 시의회를 방문하였다. 방문 당시 대만은 선거 기간으로, 의원들과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왕자충 부비서장을 비롯한 의회 직원들의 영접을 받았으며,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전시관을 둘러보았다. 먼저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둘러보았는데, 우리 의회와 대조적으로 각 의원별 책상에 각종 서류 및 책자들이 있어 본회의장에서도 심사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규모는 의원수가 많은 관계로 우리 의회보다 매우 컸다. 내부 시설 및 각종 방송장비 등이 잘 갖춰져 있었다.

이후 의회 전시관을 방문하였는데, 규모도 상당하며 타이베이 시의회의 역사와 걸어온 발자취를 한눈에 볼 수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 서울특별시와 대구광역시 자매결연실이 눈에 띄었다. 우리 의회도 여건이 된다면 이런 전시관을 조성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회의실에서 왕자충 부비서장과 환담을 가졌다. 타이베이 시의회는 의장을 정점으로 행정인력을 대표하는 비서장과 부비서장을 필두로 10개실로 조직되어 있다. 우리나라로 치면 비서장은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장이 될 것이다. 아무래도 타이베이 시의회 인사권이 의장에게 있다보니 부비서장도 둘 수 있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인사권 독립문제를 심도 깊게 검토해야할 때가 된 거 같다.

■ 관련사진



타이베이시의회 본회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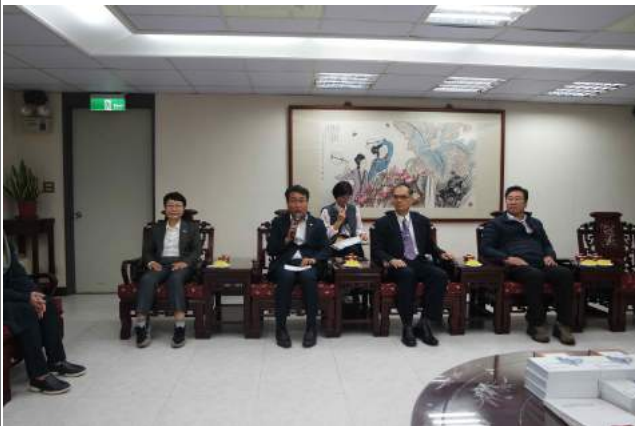
담당직원으로부터 설명 듣는 모습



전시관 관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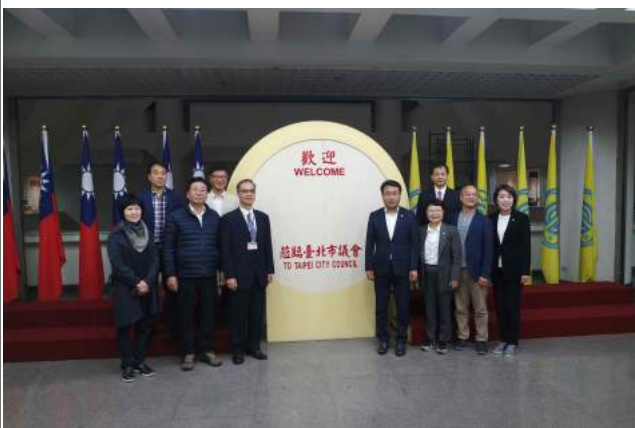
타이베이시의회 의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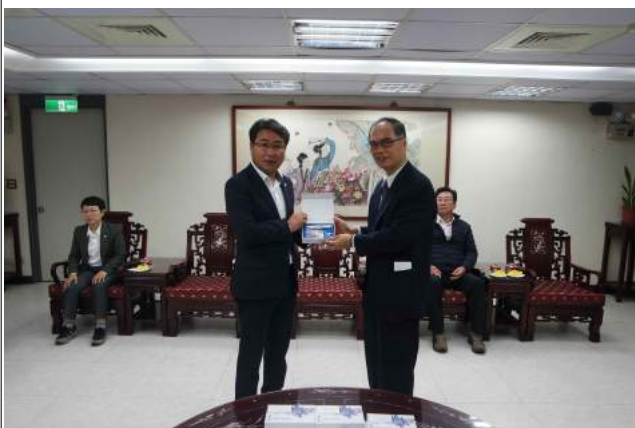
회의실에서 간담회



타이베이시의회 역사관



타이베이시의회 현관 기념사진



방문기념품 전달

☒ 문화 관광 분야

□ 대만 고궁박물관

타이베이시 중심부에서 북동쪽으로 약 8km 가량 떨어진 쌍계의 녹음이 우거진 산록에 자리잡고 있다. 4층의 중국 궁전 양식으로 지어진 이 곳은 중국 5천년의 역사와 문화 예술의 집합체로서 대만 문화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유명한 지역이다. 고궁박물관에는 신석기 시대의 출토품에서 중국 역대 왕조의 보물 등 세계적으로 가치가 인정된 문물이 70만점 가량 소장되어 있다. 그 중에 일반인에게 전시 공개되고 있는 것은 약 12,000점 정도이며 3~6개월 마다 교체하여 전시한다.



고궁박물관 옥 전시관



고궁박물관 도자기 전시관



고궁박물관 유물 전시관



고궁박물관 광장

□ 대만 중정기념당

중정기념당은 대만의 초대 총통이자 대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추앙받는 장제스(蔣介石)를 기리는 기념당이다. 1975년 장제스 총통이 서거하자 그의 위업을 기리기 위한 기념당 설립이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되었고, 1980년 4월 5일 중정기념당이 정식 개관했다. 25만㎡에 이르는 자유광장에 우뚝 선 높이 70m의 건축물이 중정기념당이다. 중정기념당 앞 계단 위에는 거대한 장제스 동상이 서 있다. 동상 앞을 지키는 근엄한 표정의 근위병들을 볼 수 있으며 매 시각 정시에 근위병 교대식이 이루어진다. 1층 전시실에는 장제스의 생애를 엿볼 수 있는 사진과 유품 등이 전시되어 있다.



근위병 교대식



1층 전시관



장제스 집무실



중정기념당 시설모형도

□ 싱가포르 클락키수변광장

싱가포르 강 하구에 위치한 클락키(Clarke Quay)는 과거 싱가포르의 무역 중심지로, 교역을 통한 상품들을 저장해두는 물류창고 밀집지역이었다. 하지만 1970년대부터 싱가포르 강의 오염이 심화되자, 싱가포르 정부차원에서 물류사업을 타 지역으로 옮기고 환경개선 사업에 돌입하였다. 클락키 개발은 5블록에 걸친 기존의 물류창고를 철거하지 않고, 모든 건물들을 복원·개조하여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형형색색의 창고건물들, 수변을 따라 조성된 독특한 디자인의 테라스, 그리고 창고건물을 덮은 거대한 파고라까지, 지금의 클락키는 싱가포르 정부가 꾸준히 관리하고 개발해온 결과물로 수변 도시재생의 대표사례다.

	
<p>클락키 거리 대형 파고라</p>	<p>해안 상점들</p>
	
<p>해안 테라스</p>	<p>마리나베이샌즈 호텔 야경</p>

□ 싱가포르 주룽 새공원

약 600종, 8,000마리의 새들이 서식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새공원으로 연간 100만 명에 달하는 관람객이 다녀가는 인기 관광지다. 새공원은 관광지로 더 유명한 곳이지만 새 병원, 조류 연구 보존 센터 등을 함께 운영하며 멸종 위기에 처한 희귀 조류를 보호하는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새들과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과 이벤트도 마련되어 특히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주룽 새공원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이벤트는 새들이 펼치는 각종 쇼다. 농구하는 새, 선물을 주는 새, 노래하는 새 등 다양한 재주를 부리는 새들을 향해 관람객들의 탄성과 폭소가 끊이지 않는다. 새공원의 전경을 파노라마처럼 볼 수 있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파노레일'를 타면 공원 전체를 편하게 둘러볼 수 있다. 주룽 새공원 내의 주요 지점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이다.



주룽 새공원 파노레일



홍학관



각종 새 쇼



주룽 새공원 입구

□ 홍콩 해양공원

아시아 최대 규모의 테마파크인 오션파크(Ocean Park)는 홍콩을 대표하는 명소이며, 홍콩섬 남부 해안 aberdeen에 위치하고 있다. 리펠스베이가 내려다보이는 탁트인 시원한 풍광은 이곳의 명칭을 실낱 나게 한다. 이곳은 크게 워터프런트(Waterfront)와 서밋(Summit) 지역으로 나뉜다. 특히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 인기가 높으며 판다와 같은 희귀 동물 관람, 1960년대 홍콩을 재현한 올드 홍콩, 놀이기구, 돌고래 쇼와 LED 워터 스크린 쇼 등 많은 볼거리가 있다.



해상케이블카



케이블카에서 바라본 홍콩 남부해안



해양공원내 트램



케이블카 탑승장

□ 홍콩 빅토리아피크 & 낭만의 거리

홍콩은 세계적인 미항으로 화려한 야경과 볼거리, 다양한 축제 등 관광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다양한 시책들과 문화상품으로 세계최대 관광국으로 명성을 얻고 있다. 야간관광상품으로 야시장을 육성, 획일적인 재래시장 지원에서 탈피하고 개성있는 전통시장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빅토리아 피크에서 야경을 감상하고 트램을 이용해서 시내로 내려오는 관광루트는 홍콩정부의 야경 관광상품을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반영한다.

	
<p>빅토리아피크에서 바라본 홍콩 야경</p>	<p>빅토리아피크 트램</p>
	
<p>홍콩 낭만의 거리 광장</p>	<p>야경을 활용한 레이저 쇼</p>



부의장 백석민

남구의회 공무국외연수단은 의원 8명과 사무국 직원 3명 등 총 11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6일까지 6박 7일의 일정으로 대만, 싱가포르, 홍콩 3개국 방문 연수를 실시하였다. 연수기간 동안 이동시간, 음식 등 다소 어려움도 겪었지만 끝까지 연수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사무국 직원 분들과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

첫 방문지 대만을 비롯하여 아시아 3개국을 방문하면서 우리 연수단은 우리나라와 비슷하면서 사뭇 다른 점을 많이 느꼈다. 우리가 방문한 3개국은 공통적으로 타국의 식민지였던 나라다. 그래서 아시아 문화와 서양 문화가 적절히 혼재되어 발전되어 왔다는 것을 가는 곳마다 느낄 수 있었다. 각 나라마다 고유의 문화를 소중히 지키며, 과거와 현재 미래가 모두 공존해 있고, 풍부한 문화유산과 건축물들이 현대의 건물들과 조화를 이루며 도시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부러움과 놀라움을 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지금은 인식변화가 조금씩 생기고 있지만, 대부분 오래된 시설이나 건물 등을 철거하고 새로운 공간을 조성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들 국가는 단순히 역사적 흔적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시켜 매력적인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

대만의 거리는 우리의 화려한 거리와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사람들도 화장이나 치장에 크게 관심이 없는 듯 하다. 건물내 조명도 크게 필요치 않으면 꺼놓기 일수다. 대만인의 소박함과 알뜰함을 느낄 수 있다. 중소기업 중심의 외채가 없는 국가라는 말이 그냥 생긴게 아닌 것 같다. 반면 싱가포르는 거대하지는 않지만 화려하다. 건물도 매우 독창적이다. 건물 하나하나 비슷한 점을 찾을 수 없었던 싱가포르 거리는 나에게서는 적지 않은 충격이었다. 비슷한 설계도면에는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싱가포르를 정부를 생각하면, 천편일률적인 우리나라 건물과 너무나 대조가 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부가 민간을 너무 강하게 규제하는 역효과는 없을지 우려되기도 했다. 홍콩은 그야말로 부산과 비슷하다고 느꼈다. 바빠 움직이는 사람들, 거

리 곳곳 공사현장. 빅토리아 피크에서는 황령산 전망대를 보았고, 낭만의 거리에서는 광안리나 해운대 야경을 보았다.

대만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와 많은 차이가 있는 나라이지만 지방분권 시스템과 오랜 경험을 가진 대만의 지방자치제도를 검토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



대만 타이베이 시의회 방문

의원 정수는 62명으로 그중 여성 의원은 무려 21명이다. 정당 비례 대표가 없는 대신에 여성의원이 4명 중 1명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임기는 우리와 같이 4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의회 행정인원수는 정식 98명, 기타 20여명으로 우리와 비교해서 매우 큰 규모이다. 특

히 인사권이 의장에게 있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적절한 권한 분배를 통해 실질적이고 강력한 지방분권을 달성하였고 이것이 대만의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6박 7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타국의 문화를 직접 눈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많은 것을 배우는 것이라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이번 연수를 통해 보고 듣고 느낀 많은 정보와 지식은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남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은 물론 구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남구의회를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연수를 마무리 하고자 한다.

VI 결 론

동아시아국가 의회방문을 통해 의회운영시스템과 의정현황 등을 시찰함으로써 우리구 의회에 도입 가능한 부문과 발전방안을 비교·분석해 볼 수 있는 유익하고 알찬 연수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또한 각종 도시기반시설과 문화 관광산업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우리구에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유익한지 실질적인 탐방과 시찰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 의회 운영 비교를 통한 발전과제

타이베이시 의회 의원 수가 우리구보다 훨씬 많고, 선거제도 등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본회의장 시설, 의회 전체적인 건물 구조면에서는 우리 의회가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타이베이시 의회의 역사와 현황을 관람할 수 있는 기념관은 외국인과 유학생이 많은 우리구에서 벤치마킹할 만 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거리 곳곳 이륜차와 소형 모니터를 이용해서 골목 곳곳을 누비는 작은 선거운동과 SNS, 인터넷을 활용한 미디어 선거운동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대형 현수막과 유세 차량, 확성기로 대표되는 우리 선거운동과는 분명 비교되었다. 일선 촌장, 이장까지 주민들이 직접 선거하는 대만과 우리와 단순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최대한 주민에게 다가가기 위한 대만의 선거운동은 우리가 본 받을 만 하다고 생각한다.

□ 도심기반시설 및 다중 편의시설 분야

대만 시내를 이동할 때 눈에 띄는 것은 도로를 가득 메운 이륜차의 행렬과 도로 바깥 일정 구간에 이륜차를 위한 전용 주차지가 많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는 기후 등의 여건이 이륜차를 많이 선호하지는 않아 대만과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좁은 도로에 차로 인한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보도쪽 일정구간을 이륜차 운전을 위한 질서정연한 전용 주차지를 설치하여 보행자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만든 것이 인상적이었다.

우리 남구에서 오토바이 주정차로 인한 불만 민원이 많고 사람들이 다녀야 할 보도나 자전거 전용도로에 설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문제점은 보도가 넓은 일정 지역에 이륜차와 자전거 전용 주차지를 설치하여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하고 불만 민원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홍콩은 거리 곳곳이 다이내믹한 우리 부산과 많이 흡사한 것 같았다. 홍콩시내의 동일한 색상으로 통일된 택시와 이층버스의 다양한 광고판 모습들은 홍콩의 아기자기한 느낌과 어우러져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주는 것 같았다. 남구지역을 다니는 마을버스나 국민체육센터 셔틀버스 등에 우선 접목시켜 남구만의 이색적인 관광자원으로 육성시키는 것도 검토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든다.

싱가포르는 굉장히 발달된 도시문화와 동양적 자연주의를 동시에 간직한 곳이다. 분명 고층 건물이 즐비한 현대화된 도시지만 거리에 나와 보면 절반이 녹지일 정도로 자연보전도 매우 잘 되어있다. 창이국제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보이는 엄청난 나무숲에 절로 감탄이 나왔다.

실제로 싱가포르 도심은 건물 반 나무 반이라고 할 정도로 녹지율이 높고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보호구역으로 가면 굉장히 잘 관리되고 있는 숲과 호수를 볼 수 있다. 싱가포르의 각종 도로에는 공간배려가 눈에 띄었고, 건축유산의 보존과 작은 강과 수로를 이용한 관광자원의 개발이 두르려져 보였다. 또한 해상케이블카, 트램, 지하도로 개발 등 덥고 습한 기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을 보면서 우리도 주위 환경을 고려한 도시계획을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동일한 건물도면에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유심히 거리를 살펴 보았다. 정말 동일한 건물은 찾아볼 수 없고, 더욱 놀라운 것은 건물 내부도 녹색이 가득하다는 것이다. 우리도 이제 건축 등 도시계획에 있어 일률적인 개발방식보다는 녹지와 환경을 고려한 우리만의 거리, 건물, 시설을 만드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해양산업분야

홍콩과 싱가포르의 해양마리나 산업이 굉장히 발달된 나라다. 많은 요트들이 정박할 수 있는 계류장과 시설 내에 요트정비가 가능하도록 요트 수리 시설이 있으며 요트에 필요한 장비나 소모품, 기념품들을 구입할 수 있는 기념품점을 갖추고 있다. 특히 센토사섬은 작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섬 내에서 숙박, 해양레포츠 등 모든 것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다.

현재 우리 남구는 Sea-Side 관광지 조성 및 이기대와 해운대를 잇는 해양 케이블카 사업이 민간투자자들이 추진 중에 있다. 홍콩과 싱가포르의 개발 사례를 살펴보면 마리나 개발은 물론 클럽하우스, 공공용지를 활용한 휴식 공간 조성 등 주변시설과 함께 개발하는 복합마리나 시설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지역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주변 환경 등의 개발로 위화감 조성을 완화시키는 노력도 함께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재래시장 활성화

대만의 야시장, 홍콩의 전통시장을 주요 일정으로 시찰한 것은 갈수록 쇠퇴해가는 남구지역의 재래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대만, 홍콩에는 야시장이 활성화되어 관광코스로도 적극 활용되고 있고 자연스럽게 관광객이 모일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행정적인 지원도 하고 있다. 점차 대형마트와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는 우리 실정은 차별적인 요인을 갖추지 못하면 전통시장은 시장으로서의 기능은 상실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싱가포르 클락키 수변광장에 즐비한 화려한 상점과 독특한 테라스를 보면서 우리 남구의 동강 주변도 이와 같이 개발하면 어떨까 고민하게 되었다. 비가 자주오는 기후를 고려해 거리에 대형 파고라를 설치해 비가 오더라도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거리를 조성한 것에 매우 감탄했다.

따라서 주차장시설 확보, 노후시설 정비 등 시설적인 측면과 상품의 차별화, 마케팅 전략, 공공목적의 공간 활용 등 경영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을 통한 극복이 우선되어야 한다. 남구 재래시장의 경우 시설적, 경영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을 위한 자체 노력과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대만, 홍콩의 관광화된 야시장처럼 지역특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차 없는 거리 운영, 짧은이의 거리, 노점상 특화구역 등 아이디어를 접목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노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분야

고령화 사회로 이미 진입한 우리 남구는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노인복지시설의 확보노력과 시설운영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기능이 미흡하고 입소노인을 보호하는 전문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남구의 경우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 등 노인복지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급증하는 노인 인구의 활용방안과 대비책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들의 경제력을 키우고자 경제 활동력이 있는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구차원에서 지원이 부족한 분야는 각종 민간단체 등에서 보충과 기부행위, 자원봉사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시책 개발 및 홍보 등으로 유기적인 협조, 그리고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 등으로 직·간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이번 우리 남구의회 공무국외연수는 대만, 싱가포르, 홍콩의 기관방문을 통한 노인복지, 해양산업 비교시찰, 재래시장 및 문화 관광시설 등의 견학을 통해 우리 구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되고 남구 주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실시하였다.

6박 7일 동안의 짧은 기간에 방문국의 모든 제도와 시책들을 연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우리 남구의 현안사항과 비교하여 폭넓게 이해하고 되돌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공무국외연수에서 쌓은 견문은 향후 의정활동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의회로 거듭나는데 밑거름이 되리라 본다.

다만 아쉬운 점은 연수계획기간이 짧은 관계로 사전에 방문기관의 정보가 부족해서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지 못한 점은 안타깝게 생각된다. 그러나 연수 내내 좋지 않는 날씨 속에서도 잘 적응하며,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소화하였고 무엇보다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공무국외연수를 마치게 되어 정말 다행으로 생각한다. 또한 국외연수심사시 제기되었던, 연수기간 중 기관 방문시 MOU체결이나 자매결연을 통한 실질적인 교류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 여겨진다.

이번 연수를 계기로 평소 바쁜 의정활동으로 많이 소통하지 못했던 여러 의원님들과 좀 더 대화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을 무엇보다 기쁘게 생각하고 빠빠한 일정 속에서도 불평 없이 서로를 배려해준 의원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